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물 한 방울로 향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부자가 되고 싶었던 조카의 노력과 조익의 지혜를 배운다.
- **주제** : 노력

**핵심어** 노력, 조익, 향아리, 두레박, 우물, 깨달음

**한국문화**

- **목표** : 이야기를 통해 한국어 속담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한국의 속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티끌 모아 태산)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한국 가족의 호칭을 알아본다.
- **단어** : 삼촌, 조카,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고모, 사촌
- **표현** : 삼촌의 집으로 조카가 찾아왔어요.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예요.

여러분, ‘두레박’을 본 적이 있나요? 두레박은 우물에서 물을 퍼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요즘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콧콧 나오지만, 옛날에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여러 번 길어야 했답니다. 그런데 두레박질을 하다가 큰돈을 버는 방법을 깨닫게 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지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에 선비 조익이 살았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조익은 꽤 높은 벼슬을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익의 집으로 조카가 찾아왔어요.

“제게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조익은 조카를 물끄러미 보았어요. 사실, 조카는 늘 가난했어요. 잔머리만 쓰고는 도통 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조익은 그런 조카에게 귀가 솔깃한 말을 해 주었어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네만.”

조익의 말에 조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서 알려 주십시오.”

조익은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조카는 잔뜩 기대하며 뒤를 따랐지요. 마당 우물가로 간 조익은 항아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때 그 방법을 알려 주겠네.”



## 이야기 들려주기

조카는 얼른 두레박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말했지요.

“뭘, 금방 끝나겠군요!”

조카는 열심히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았어요. 하지만 계속 담고, 또 담아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조카는 그제야 항아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항아리 밑바닥이 뽕 뚫려 있잖아!’

조카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조익에게 따졌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바닥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까!”

하지만 조익은 그저 허허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아, 그랬나? 좋아, 그럼 내일 다시 오게나. 그때 다시 알려 주겠네.”



## 이야기 들려주기

조카는 그런 조익의 모습에 무척 당황했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알려 주겠다는 말에 꼭 참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다음 날, 조카는 아침 일찍 조익을 찾아왔어요. 조익은 조카를 다시 우물가로 데리고 갔지요.

“저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면, 부자가 되는 법을 꼭 알려 주겠네.”

조카는 이번에는 먼저 항아리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지요. 다행히 항아리는 깨진 곳 없이 멀쩡했어요. 그제야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꼭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면 돈 버는 법을 알려 주셔야 한다고요!”

조익은 또 아무렇지 않게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조카는 다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될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아니! 이게 뭐야?”

이번에는 두레박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어요. 구멍으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지요. 항아리에 얼른 물을 담으려고 하면, 몇 방울 그저 똑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빨리 끌어올려도 말이지요. 조카는 화가 치밀어 올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날 정말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어떻게 이런 두레박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냐고!’

조카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부자가 되는 법을 영영 알 수가 없을 것 같았지요. 또, 여태 노력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쉬웠어요.

“좋아, 한번 해 보자!”

조카는 쉬지 않고 구멍 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어요.

몇 방울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항아리에 옮겨 담았지요. 몇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는 물로 항아리를 채우기란 쉽지 않았어요. 손은 부르트고 벌겍게 퉁퉁 부었지요. 팔다리는 물론 어깨도 쭈시고 아팠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하아, 언제 다 채우냐 말이다.”

한숨을 계속 쉬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하다 보니, 항아리에 물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니 몸이 아픈 것도 잊고 슬슬 재미나기 시작했지요.

“그래, 조금만 더 하면 가득 찰 수도 있겠어!”

조카는 있는 힘을 다해 두레박질을 계속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어느덧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이야! 물이 다 찼어!”

도저히 찰 것 같지 않던 항아리가 물로 가득 찼어요. 조카는 기뻐서 싱글벙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어이, 조카! 어찌 되었는가?”

그때 조익이 우물가로 다가왔어요. 조카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익에게 물었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보세요! 항아리의 물이 가득 찼어요. 자, 이제 약속대로 제게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 주세요!”

조익은 조카를 물끄러미 보고 미소를 머금었어요.

“정말 수고했네. 하지만 난 이미 자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네.”

조카는 멍한 얼굴로 조익을 쳐다봤어요.

“네? 언제 가르쳐 줬단 말입니까?”

조익은 조용히 우물가 항아리를 가리켰지요. 조카는 어안이 빙빙하여 항아리를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알았다는 듯 큰 소리로 웃고 말았지요.

“하하하! 네, 알았습니다. 그 방법을요.”

조익도 뿌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 이야기 들려주기

“바로 자네가 생각한 게 맞네. 작은 물방울을 열심히 모아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작은 일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 큰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아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일세.”

조카는 결심한 듯이 조익의 손을 잡았어요.

“네, 노력하여 무언가를 얻는 보람과 기쁨을 오늘 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부지런히 살아 보겠습니다!”

조익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조카는 그 후로 더 열심히 일해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둘째 날, 조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울 때, 두레박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맞아요. 두레박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도 한 방울, 두 방울, 조금씩밖에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방울의 물도 꾸준히 모으다 보니, 마침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었지요. 이처럼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큰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요. 항아리 바닥이 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보람이 없는 일을 뜻하는 속담이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랍니다. 여기서 ‘독’은 항아리를 뜻하지요.

둘째 날은 어땠나요? 한 방울, 한 방울씩 꾸준히 모아서 항아리를 가득 채웠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 담긴 속담은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속담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조익’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큰돈을 벌고 싶었던 조카는 삼촌 조익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로 항아리를 채운 것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할머니가 응원할게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